



[산업]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사업 27개분야 464억 지원 06



Economy

코스피	3120.83 (+8.03)	코스닥	969.77 (-0.32)
금리 (미국 3년)	1.198 (+0.047)	환율 (원/달러)	1127.70 (+0.20) (5일)



투표용지 검수하는 관리관들 4.7 재보궐선거를 2일 앞둔 5일 오후 서울 시내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들이 영등포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투표용지 최종 검수와 봉인작업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구광모뎀 LG의 '선택과 집중' 휴대폰 접고 전장·AI·로봇 강화

MC사업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 작년까지 누적 영업적자 5조 규모 LG전자 총 매출액의 8.2% 달해

7월 31일 휴대폰 사업 종료 결정 중장기 체질·재무구조 효과 기대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뉴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다.

LG전자 MC사업부는 지난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원 규모다. 오랜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핵심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LG전자는 5일 이사회에서 오는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MC사업부문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현재 MC사업부문 규모는 5조2171억원이다. LG전자매출액(63조2620억원)의 8.2%에 해당한다.

LG전자는 영업정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전자 매출액 감소를 예상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체질 및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최근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이 양강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주요 경쟁사들이 보급형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가격 경쟁이 더 심화됐지만 대응에 실패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내부자원을 효율화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준비를 가속화하며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축적한 휴대폰 사업 자산과 노하우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사업 준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충분히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구매 고객과 기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울러 거래선과 협력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5월말까지는 기존 휴대폰 생산을 지속한다. 이후에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LG전자는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LG전자 타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일방적 대주주 견제하려다 경영권 방어벽만 더 높아져

### 기울어진 주총

#### <下>소액주주 운동의 역효과

변호사 등 법무법인에 방어 의뢰 소액주주 "변호사의 회사" 분통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소액주주 운동이 일부 기업에서는 더 폐쇄적인 운영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을 지키기 위한 소액주주 연대가 역설적으로 주주친화 경영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영진이 변호사 등 법무법인에 경영권 방어를 의뢰하면서 소액주주 운동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주총 관장하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

온라인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사 A사. 지난주 열린 A사의 주총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기자를 가장 먼저 맞이한 이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검은색 양복에 물방울무늬 넥타이를 맨 남성이었다.

참관을 요청하는 기자의 말에 오른손으로 턱을 괴며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던 그는 마지못해 허락하는체 하며 옆 사원에게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회사의 중건 간부쯤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자신을 회사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오전 8시로 예정됐던 주총은 9시가 넘어야 시작했다. 사측의 주주명부 확인이 지연되면서다. 양측 간 의견권정족수 확인에 착오가 있어 정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위임장 위조 사례와 철회 등도 발견됐다. 반발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고성도 나왔다. 소액주주측에서 제안했던 안건은 표 대결에서 모두 부결되며 사실상 주총에서 회사측이 완승을 거뒀다.

주총이 끝나자 소액주주연대대표를 맡은 김인혁 씨가 최고경영자(CEO)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단 10분 만이라도 좋으니 접촉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답했다.

면담을 거절당한 김 대표는 "변호사의 회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경영진이 변호사를 맹신한 나머지 변호사의 말대로 하면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상의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생각과 판단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4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코스피 거래대금 추월

가상자산 거래량 18조 넘어 '김치 프리미엄' 16% 돌파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국내 하루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앞질렀다. 여기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이 뚜렷해지면서 2018년 폭락장이 다시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24시간 거래량은 18조1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코스피(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인 15조1336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주식 시장은 하루 거래 시간이 한정된 데 비해,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가상자

산 투자 시장의 급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 분위기가 과열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격과 글로벌 거래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도 일주일 새 3배 가량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2시 5분 기준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개당 751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5만7270달러(약 6458만원)에 거래되면서, 빗썸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16.28%(1050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5%를 밑돌던 김치프리미엄은 지난 2일 10%를 넘어섰고, 이날 16%까지 올라섰다. 가상자산 투자 위험도 척도를 측정하는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 86.26로 '매우 탐욕적' 단계로 진

단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2018년 하락장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주춤한 틈을 타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며 "언제든지 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김치프리미엄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기영 크립토큰트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18년의 50%의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한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거래량을 따졌을 때 2018년 1월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전체 7.9%를 차지한데 비해 최근은 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5일 코로나19 확진자 473명... 서울 149명 /사진 뉴스
- ▲ 코로나19 사망자 4명 늘어 누적 1748명... 위중증환자 97명

- ▲ SH공사 "땅투기 의심 직원·가족 없다"... 2차 전수조사 결과
- ▲ '완주 땅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 '아내 명의로 구입'



- ▲ 박영선 "부채 20조 늘려" vs 오세훈 "4조 늘어... 건전함 빛" /사진 뉴스
- ▲ 서울시장 선거 D-2... 부동산 공약에 건설·시멘트주 강세